

모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711천 km ²	GDP	990억 달러(2011년)
인구	32백만 명(2011년)	1인당 GDP	3,058달러(2011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Dirham(DH)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8.42

- 모로코는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와 3,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에 자리잡고 있음.
-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에 힘입어 카사블랑카 등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발달하였고, 농산물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모하메드 6세 국왕이 1999년에 즉위한 후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아랍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2011년 2월에 튀니지 민주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사법권의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재발하는 등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큰 구조

- 2011년을 기준으로 농업·수산업 부문은 GDP의 16.6%에 불과하나,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GDP 성장률: 5.6%('08) → 4.8%('09) → 3.8%('10) → 4.3%('11)
 - 농업 성장률: 16.3%('08) → 30.4%('09) → -1.6%('10) → 6.0%('11)
- 2007년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 성장률이 -20.8%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2.7%에 그쳤으나, 2008~09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및 양호한 작황으로 인해 각각 5.6%와 4.8%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10년에는 강수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3.8%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작황과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2009년 이래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2007, 08년에 보수적 재정 운영으로 각각 GDP 대비 0.2%와 0.4%의 흑자를 기록한바 있으나,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확대재정 정책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2.2%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확대재정정책이 지속되어 재정적자가 GDP 대비 4.7%로 전년보다 늘어났고, 2011년에도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조금 증가와 공공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5.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2.7	5.6	4.8	3.8	4.3
재정수지/GDP	0.2	0.4	-2.2	-4.7	-5.8
소비자물가상승률	2.0	3.7	1.0	1.0	1.4

자료: IMF, EIU.

□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관리변동 환율제로 인한 환율안정의 영향으로 최근 연 1%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국제 상품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GDP의 5% 수준) 지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09~10년에는 1%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2011년에는 원유 등 국제 상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1.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관광업의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취약

- 2011년을 기준으로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1.2%, 인광석 등의 광업 및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32.2%, 농업 및 수산업이 16.6%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은 GDP의 점유비중이 낮으나, 전체 인구의 약 40%가 종사하고 있으며, 기후 여건에 따른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작황의 변동이 심하며, 특히 2006~07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하였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중동의 정세, 테러 발생 유무, 유럽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움.
- 정부가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교역의 높은 유럽 의존도

-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로서 수출,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외국인투자 등 대외거래 관련 수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대외거래의 약 75%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주요 수출국(2010년 기준): 스페인(22.5%), 프랑스(20.3%), 인도(5.6%), 미국(4.8%)
- 주요 수입국(2010년 기준): 프랑스(18.8%), 스페인(15.8%), 중국(8.8%), 미국(6.9%)
- 정부가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

- 모로코는 전 세계 인광석의 약 3/4를 보유하여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인광석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임.
- 인광석의 확인매장량은 110억 톤, 추정매장량은 580억 톤임.
- 정부가 2008년에 인광석 개발 및 비료, 화학 등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광석 산업을 자유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향후 동 부문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11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광석 가격이 전년 대비 44.6% 상승한 톤당 2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량도 전년대비 39% 증가하는 등 인광석 산업이 호조를 보였음.
- 이외에도 아연, 납, 구리, 망간 등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틀라스의 미탐사 지역에는 상당량의 금, 은, 코발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관광산업 집중 육성

- 유럽과 근접한 지중해에 위치하여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이집트와 함께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관광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GDP의 51%에 달하고 있음.
-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80억 유로 규모의 'Azur Plan'을 수립하여 해수욕장, 인프라, 호텔, 스포츠 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2012년까지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480억 유로의 수입이 기대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투자센터(Regional Investment Centre)를 개설하여 투자 관련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2012년 World Bank의 'doing buiseness' 지수에서 모로코는 183개국 중 94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1단계 상승하는 등 기업환경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있음.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정부는 1993년부터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음.
-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음.

□ ‘재생에너지개발 통합프로그램’ 실시

- 정부는 ‘재생에너지개발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총 전기소비량의 42%를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각 14%)로 충당할 계획임.
 - 풍력발전량은 현재 연 280MW이나, 5개의 풍력발전단지(약 40억 달러 규모)를 조성하여 720MW로 늘리고, 2020년까지는 2,000MW까지 확대할 계획임.
 - 또한 5개 태양광발전단지(약 90억 달러 규모)를 건설하여 연 1,000MW의 발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연 2,000MW까지 확대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 개발은 약 95%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설비산업 발달, 지역 경제 발전, 기술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상수지는 2001~06년간 만성적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224	-5,659	-5,362	-4,209	-8,729
경 상 수 지 / G D P	-0.3	-6.4	-5.9	-4.6	-8.8
상 품 수 지	-14,170	-19,497	-16,363	-15,062	-19,319
수 출	15,146	20,330	14,045	17,584	20,991
수 입	29,316	39,827	30,408	32,646	40,310
외 환 보 유 액	23,980	21,976	21,924	21,762	21,462
총 외 채 잔 액	20,544	20,825	23,752	26,565	28,081
총 외 채 잔 액 / G D P	27.3	23.4	26.0	29.3	28.4
D S R	11.5	10.1	10.2	9.2	9.1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에 GDP 대비 0.3%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국제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증가하면서 6.4%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도 5.9%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인광석 등의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6%로 전년 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국내외 투자 재개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 및 원유 등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8.8%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220억 달러 수준 유지

- 2001년부터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2003년 말 기준 141억 달러에서 2007년 말 기준 24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08년에 금융위기 여파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환보유액이 220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상품 수입 증가로 2009년 이후 감소하여 2011년 말에 5.0개월분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억 달러): 220('08) → 219('09) → 218('10) → 215('11)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5.5('08) → 6.6('09) → 6.2('10) → 5.0('11)

□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황**

- 총외채잔액은 인프라 개발 및 산업 다변화를 위한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나 2007년 205억 달러에서 2011년 281억 달러로 36.7% 증가하였고, GDP 대비 외채 비중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양호한 D.S.R(2011년 기준, 9.1%)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알라위트 왕조의 통치 지속**

- 1672년에 알라위트(Alaouite) 왕조가 세워진 이후 18대 국왕인 현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까지 지속되고 있음.
- 1999년에 즉위한 모하메드 6세는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인권 및 개인의 자유 향상, 여권 신장, 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03년에 정의·화해위원회(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설치하여 선대 국왕인 하산 2세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법을 제정하여 여권 신장,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 2005년에는 National Initiative for Human Development를 발표하여 빈곤, 보건, 교육, 실업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2007년 총선 실시 후 아바스 엘 파시 내각 구성

- 2007년 9월 총선에는 33개의 정당이 참여하였으며, 집권 연립여당인 독립당 (Parti Istiqlal)이 325석 중 52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부상하였음.
- 당시 정부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로코 민간 기구와 국제 선거감시단체 등 21개국 52명의 국제 감시단의 참관을 허용하였음.
-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제1당인 독립당의 당수인 아바스 엘 파시(Abbas El-Fassi)를 총리로 임명하고, 33명의 각료로 구성된 신정부를 구성하였음.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 모로코는 왕정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1년 2월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국왕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포괄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 개헌안은 투표율 74.8%, 찬성률 98.5%로 통과되었음.
- 헌법 개정안은 완전한 입헌군주제의 도입,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및 사법권의 독립, 베르베르어의 공식어 채택, 남녀평등 및 개인 자유 보장, 부정부패 척결,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총선 전후인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국왕의 여전한 핵심권력 및 군부 장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발하는 등 정국이 불안한 실정임.

□ 2011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PJD 승리

- 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는 온건 이슬람 세력인 정의발전당(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PJD)이 전체 395석 중 107석을 차지하면서 제 1당이 되었고, 2007년부터 연립정부(5개 정당)를 이끌던 독립당(Independence Party)은 60석에 그쳤음.
- 2011년 11월 29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개정 헌법에 따라 제 1당인 PJD의 압델리라 벤키라네 사무총장을 총리로 지명하고 여타 정당을 포함한 연립 정부 구성을 일임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지속

- 2011년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동년 2월에 모로코에서도 정치개혁 및 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위는 튀니지, 이집트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되었고, 3월에 국왕이 헌법 개정 등 포괄적 개혁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일단락되었음.
- 2011년 7월에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헌법 개정안이 민주적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나, 9월에 국왕의 권력 제한, 총선 반대 등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1월에 수도 라바트에서 실직자 5명이 일자리 부족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하였으며, 카사블랑카에서는 왕정의 정치개혁이 헌법 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발하였음.

□ 높은 실업률

- 공식 실업률은 2011년 기준으로 9.2%이나 실제로는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World Bank에 따르면 25세 이하의 실업률이 2009년을 기준으로 21.9%에 달하고 있음.

□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및 범죄 활동 발생

- 2003년에 카사블랑카에서 45명이 사망하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대 테러법을 제정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으나, 2007년 메크네스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알카에다를 배후로 한 테러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4월 28일에는 관광명소인 제마 엘 프나 광장 부근에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MI)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였음.
- 2011년 1월에 군인 5명이 AQMI와 동조하여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범죄조직과 AQMI가 연계된 마약 등의 밀수 행위가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부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폴리사리오, 알제리와 긴장관계

- 1976년에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하였음.
- 서부사하라 주민들은 1973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Polisario Front)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1976년 이후에는 모로코와 모리타니를 공격해 왔음.
- 인광석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주변국의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1979년에 모리타니가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1988년에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가 UN 평화안을 수용하면서 1991년에 UN의 중재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UN의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으나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모로코 정부는 서부사하라 지역에 군 시설을 설치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등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서부사하라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폴리사리오와 접경하고 있는 동시에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고 있는 알제리와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음.
- 서부 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중재 하에 분쟁 당사자인 모로코, 폴리사리오와 유관국인 알제리, 모리타니가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모로코 정부가 포괄적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알제리 정부가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실시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유럽과 긴밀한 관계 유지

- 1787년에 모로코가 신생 독립국인 미국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 9.11 사태 발생 이후 모로코는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의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과의 FTA가 2004년에 체결, 2006년에 발효되면서 미국과의 교역이 확대되었음.
-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는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1차 모로코-EU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2010년 8월 EU는 모로코의 농정 개선, 오지 거주민 통합, 문맹 퇴치를 지원하고자 1억 3,500만 유로의 원조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 모로코는 1987년에 EU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주변 아랍국과의 협력 추진

- 2007년에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간 자유무역지대(Arab-Mediterranean FTA) 설립을 위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1989년에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 알제리와 아랍마그레브연합(UMA)¹⁾을 창설하여 북아프리카 아랍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서부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알제리와 갈등관계를 지속하면서 협력 관계는 지지부진하였음.
- 그러나 2011년 11월 총선 이후 신임 외무부 장관이 2012년 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 진전 방안 및 UMA 부활을 통한 정치·경제 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최근에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2011년에 정부가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관계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3년 제10회 청소년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와 2015년 제27회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African Cup of Nation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1983년에 급격한 외채 증가로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성공적으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고 있음.
- 201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3억 7,070만 달러, 중장기 49억 2,940만 달러로 총 53억 10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3,820만 달러로 전체의 0.72%에 불과함.
 - 단기 : 총 지원잔액 3억 7,070만 달러 (연체금액 : 110만 달러, 0.3%)
 - 중장기 : 총 지원잔액 49억 2,940만 달러 (연체금액 : 3,710만 달러, 0.75%)

1) 1989년 설립된 북아프리카 5개국(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의 지역 협력체임.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76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76년), 문화과학협력협정(1979년), 이중과세방지협약(2000년), 관광협력협정(2006년)
-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모로코 교역 규모는 4억 9,957만 달러, 상품수지 흑자는 2억 2,506만 달러
 - 2011년 기준 대 모로코 수출은 자동차,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3억 6,232만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동제품, 기타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1억 3,726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모로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출	302,203	322,780	362,317	자동차,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수입	108,932	153,485	137,257	석유제품, 동제품, 기타비금속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1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22건, 5,992만 달러

V. 종합 의견

- 유럽과 근접한 지중해에 위치한 모로코는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북아프리카의 대표적 관광지로 손꼽히며,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4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풍부함.
-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는 경제구조로 인해 2010년에는 강수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3.8%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작황과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D.S.R도 9% 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 대외지급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2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왕정의 정치개혁안 발표 및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2012년 1월에 부진한 정치개혁을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개되는 등 당분간 정치, 사회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